

二 全體會議

7月21日(土) 10時

會場：崇義女子高等學校 大講堂

1. 國民運動으로서의 讀書와 圖書館

◎司會 李鍾文(圖協 事務局長)=式順에 따라 다음은 “國民運動으로서의 讀書와 圖書館”에 對해서 再建國民運動本部 指導部 次長으로 계시는 崔汝植先生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崔汝植(再建國民運動本部 指導部次長)=只今 紹介받은 再建國民運動本部 指導부에 있는 崔汝植입니다. 먼저 謝過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것은 이러한 大會 順序에 關한 油印物이 印刷되기前에 저이가 알았다고 할것 같으면 좀더 이러한 모임에 여러분께 도움이 될수 있는 얘기를 할수 있을텐데……그러나 已往에 이렇게 時間이 되고 해서 나오기는 했읍니다만 사실 저의들 國民運動이라는 것과 오늘 이러한 모임과 直接 關聯있는, 그리고 이 時間을 채울만한 話題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이點 매우 罪悚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國民運動本部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서 圖書館事業과 關聯이 되어 實施하고 있는 몇가지를 紹介해드리고 여러분의 參考에 資코져 생각합니다. 흔히 우리는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所謂 民도가 낮다. 이런말을 많이 쓰고 또 많이 듣고 있습니다만 저 個人 생각으로서는 民도가 낮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말에 全的으로 肯定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할것 같으면 民도가 낮다는 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나, 文盲이 얼마나 많

으나 이렇게 測定 해질것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에는 只今 유엔에 加入하고 있는 나라가 100이 넘습니다만 文盲이 없는 나라는 別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東南亞 細亞라던지 아랍世界에는 글을 모르는 사람이 90~95%程度로 수두룩하고, 歐羅巴는 적지만 阿弗利加, 南阿 같은데에는 우리나라에 비교할 수 없을 程度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의 比率이 世界的으로 볼때 相當히 높습니다. 또 하나 民도가 낮다. 이것은 나는 大學·高等學校에 다니는 사람의 數가 全體人口의 얼마를 차지하느냐 이런것과 關聯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大學 高等學校의 學生數가 全體人口에 比해서 그 比率을 볼때에 全世界에서 다섯 손가락됨에 끼일만한 좋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民도가 낮다는것은 틀리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比해서 實際로 글을 읽는 사람의 數는 어떨냐. 이것은 確實한 統計數字는 어렵지만 글을 읽을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比해서는 每日 글을 읽는 사람의 數는 적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文育率은 宏壯히 낮은데 讀書率 所謂 讀書熱이 아주 적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래서 글을 읽을줄 알면서도 왜 글을 안 읽느냐 여기에는 여러가지 原因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原因中에 第一은 原因은 即 책을 살수가 없다. 책을 구할수가 없다. 이러한 原因이 많은데 또 이런 사람은 都

市보다 窮僻한 農村이 더욱 더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이가 그래프로 計算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政府豫算으로서 글을 읽을줄 알면서도 책을 구할 수 없어서 책을 못읽는 사람들을 爲해서 政府돈으로 책을 사주자 그러니까 이것은 莫大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計劃을 하나 내었습니다. “休紙를 蒐集하자” 이 자리에는 學校先生任들이 많을 것으로 보니다만 各學校에서 試驗紙같은 것이나 事務用品을 내어 버리는 것이 하루에도 宏壯히 많고 또 官公署같은데서도 秘密이 漏泄된다고 해서 뒷마당에서 태워버리는 것이 相當히 많은데 이런 것을 좀 그분들의 協助를 얻어서 거두자, 이로서 學校, 官公署, 銀行, 企業體에서 내어버리는 休紙를 各機關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協力을 얻어서 모두어보자 그래서 休紙를 蒐集한 것은 어떤 特殊한 工場과 契約을 맺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農村 文庫를 만들어보자 이런 構想을 해서 今年 4월부터 出發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再建國民文庫 普及會”라는 名稱으로 出發되었습니다. 제가 直接 擔當하고 있는것은 아닙니다만 國民運動本部에서 監督해서, 只今 이 文庫普及會에서 豫想하기는 1년에 約 70萬貫의 休紙를 官公署라던지 銀行, 學校에서 求得할 수 있다고 豫定하는데 이것은 돈을 안주고 얻을수가 있거던요 그래서 이것을 價格으로 計算하면 新貨로서 900만원에 該當하는데 책 1卷當 100원씩 해서 1년에 約 10萬卷을 살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그만한 책箱子에 넣어서 책없는 部落에 한部落當 50卷씩 해서 10萬卷을 가지고 2千部落에 나누어 줄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計算대로만 된다면 이것도 相當한 成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千部落이라면 한면에 한部落씩은 最少限度 50卷씩의 책이 青年會長이나 里長집에 備置되어가지고 部落民들이 책을 나누어볼수 있게 設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사서 보내느냐 하는 것은 여러번 問題도 되었습니다만 大概 農村사람들, 自己네生活, 自己네 生業을 어떻게 改良하고 向上시켜 나가느냐 하는 問題와 直結되는 책을, 또 養豚이나 養鷄를 어떻게 할것이나 또한 다른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보다 땅이 좋지못한 곳에서도 어떻게 해서 잘 살게 되었다는 이러한 책을 사서 各部落에 나누어 주자 그래서 1년에 10萬貫의 休紙를 蒐集해서 그 收入으로 책을 사서 農村마다 洞里마다 文庫를 만들어보자는 運動이 實施 展開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貨幣改革이라는 大事業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인제는 쓰지 못하는 옛날 紙幣 이것은 종이의 質이 좋은데 이것도 政府當局과 折衷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의 質이 좋은 關係로 相當히 많은 값에 팔아가지고 책을 많이 사서 農村에 많은 文庫의 設置가 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國民運動本部에서 하고 있는 問題의 하나는 “姊妹部落結緣” 이것은 어떤 都市에 있는 큰 企業體나 洞會나 學校가 어떤 窮僻한 農村部落과 結緣을 맺어가지고 來往해가면서도 도와주기도 하는 運動으로서 只今 約 4千程度의 農村部落이 都市에 있는 官公署라던지 洞會와 結緣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今年末이 되면 約 6千個가 될것입니다. 그러면 都會地에 있는 企業體나 官公署나 洞會에서 무엇을 도와주느냐

勿論 農事짓는데 도움이 될만한 소도 한 마리 갔다가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특히 要請하는 것은 그 農村部落에다가 文庫를 맡들어주는 것이 重要的 題目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只今 約3千個의 部落은 책의 分量은 많은데도 있고 적은데도 있지만 農村文庫라는 것이 이미 만들어져서 書籍이 陳列되어가지고 있는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또 앞으로의 腹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國民運動本部에서 하는 事業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글을 좀 읽을줄 알게 많이 만들어주는 것도 이 일과 關聯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文盲을 없애는 運動, 義務教育을 시키는 일은 文教部에서 管掌하고 있습니다만 義務教育이 아니고 19歲以上の 國民에게 글을 알도록 하는것은 우리 國民運動本部에서 專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軍門에 들어가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論山訓練所에서 글을 가르치는 시간을 가졌읍니다만 只今은 저의가 兵丁에 들어갈 나이에 있는 사람을 먼저 뽑아서 그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쳐서 적어도 國民學校 2學年程度까지는 알도록 해서 軍門에 들어갈 때에는 全部 다 글을 알도록 하고 있는데 이 運動을 우리가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첫번에 생각한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만 豫定했던대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우리는 努力을 繼續하고 있습니다. 마침 저에게 주어진 時間도 다 되고 또 여러분이 하시는 事業과 關聯해서 더 말씀드릴것도 없고 해서 이만 끝이겠습니다. 感謝합니다.

(장내 빅수)

2. 國內出版界의 現況

◎邊宇景(大韓出版文化協會 會長)=우리가 흔히 한나라의 文化的 尺度가 그나라의 出版水準에 淵由하는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47年 獨逸의 「구텐벨크」의 近代活版術 發明에 앞서기 200餘年前 이미 1230年에 銅活字를 使用하여 圖書를 刊行한 記錄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국의 出版界는 解放後 17年の 年輪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바 그 歷史가 外國出版界에 比較하여 알다고 아니할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의 出版界는 現在 大體로 約 500餘 出版社가 文教部에 등록을 하고 年間 總記, 法政, 哲學, 工學, 藝術 및 文學, 歷史, 社會, 經濟, 宗教, 產業, 語學, 兒童도서, 그리고 學習參考書의 13種目으로 區分되는 一般刊行物에 있어서 新刊 및 再版物을 包含하여 年間 2千3百餘種의 單行本을 發行하고 있는 現實인데 이 圖書는 全國의 6,7個 道매상을 經유하여 600餘 小賣店의 販賣[루우트]를 通하여 頒布되는 것입니다. 물론 번역도서도 包含되며 新刊 보통 千部에서 千5百部를 헤아리고 再版은 2千部에서 3千部가 普通입니다. 우리가 그 內譯을 1961年度의 보통 刊行物月末種別統計表로 보려는 다음과 같습니다. 社團法人 大韓出版文化協會가 아까 말씀드린 全國의 5百餘出版社로써 構成된 唯一한 出版人의 團體이며 韓國의 出版人은 出版協會를 통하여 國內國外를 莫論하고 出版人을 代辦하는 기관입니다. 안으로 月刊 出版文化의 기관지를 通하여 國內出版人의 團結과 友誼를 圖謀하고 이에 隨伴해서 良書出版의 自律的 倫理構成을

普通 刊行物 月末 種別 統計表

1961年度

區分	總記	歷史	法政	社經	哲學	宗教	工學	產業	藝術	語學	文藝	醫藥	教育	學習參考	兒童	漫畫	其他(한)	月計
1	15	1	3	1	7	8	3	2	7	2	17	—	—	12	12	—	—	90
2	28	7	7	7	2	10	1	1	8	10	28	—	—	18	4	—	—	131
3	17	4	6	2	4	5	3	7	7	22	23	—	—	24	10	—	—	134
4	19	3	7	6	5	10	3	3	3	5	17	—	—	52	—	—	—	133
5	24	6	15	4	5	27	20	9	4	14	27	—	—	46	6	—	—	207
6	19	12	18	9	3	11	18	8	5	2	26	—	—	86	6	—	—	223
7	15	7	23	14	9	9	8	14	2	—	20	—	—	56	40	2	—	219
8	8	3	15	6	10	7	2	2	—	—	12	—	—	40	5	5	—	115
9	5	8	18	7	10	11	4	5	3	7	52	—	1	93	10	5	1	240
10	21	5	18	13	3	9	—	4	13	11	41	3	3	55	2	3	4	208
11	23	10	17	8	5	17	2	4	13	23	74	15	2	42	10	1	14	280
12	27	2	16	4	3	16	18	10	7	8	86	8	14	22	30	11	28	310
計	221	68	163	81	66	140	82	69	72	104	423	26	20	546	135	27	47	2,290

強調하고 있는바입니다. 國外로 1957年自由世界 30餘個國이 參加하고 있는 國際出版協會에 加入하고 國際出版人 相互間의 圖書를 통한 文化交流와 各國 文化人의 著作權을 擁護하는 모임에 積極 參與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出協은 解放後 6, 7次에 걸친 國際圖書展示會에 參加하여 매년 國內 우량도서 3百餘種을 美國을 爲始한 佛蘭西, 西獨, 日本 等地에 代表와 圖書를 보내서 韓國出版界의 品位昂揚에 努力하고 있습니다. 大韓出版文化協會 事務當局이 調査한 1962年度 單行本 및 月刊雜誌의 出版動向은 初·中·高等學校의 教科書를 除外한 一般單行本分野를 살펴 보면 學習參考書가 首位로 約 25%를 占하고 있으며 다음 文學圖書가 20%, 사전, 통계 같은 圖書의 總記가 15%의 順序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法律圖書 歷史, 經濟, 兒童圖書, 哲學, 產業, 工學의 順으로 되어 있는데 工學, 產業 같은

圖書는 年間 6, 70種에 不過한 現狀입니다.

4·19 以後는 出版界의 動向에 있어서 特記할 事項은 國內의 比重있는 出版人들이 良書刊行에 全力을 기울였으며 1960年度 10月下旬에 韓國日報社에서 設定한 國內第1回出版文化賞 施賞에 있어서 “韓國文學全集 全36卷(民衆書館) 古語辭典(東亞出版社) 코리아(學園社) 現代女性生活全書 15卷(女苑社) 現代思想講座 7卷(東洋出版社) 등이 受賞對象에 오른바 있으며 此外에 「韓國史」, 「韓國歷史小說全集」, 世界文學全集, 韓國兒童文學讀本(乙酉文化社), 한글小辭典, 修養全集, 世界文學全集(正音社), 韓國野談史話全集, 修養全集 高麗時代史, 韓國民謠集(東國文化社), 國語大辭典, 韓國兒童文學全集(民衆書館), 現代人講座(博友社), 世界전후問題作品集(新丘文化社), 國內法律圖書(博英社), 世界音樂大全集, 世界名曲大辭典(國民音樂研究會), 自然科學, 社會科學圖書(一潮

關), 陽文文庫 全百卷完成(陽文社), 韓國動物圖鑑(中央圖書株式會社), 韓國教育目錄(中大教育學科編) 1961年度の 韓國日報社 韓國出版文化賞은 閔中鉉(民衆書館), 감은사(乙酉文化社), 世界文學全集 全30卷(正音社), 世界文學全集 全21卷(乙酉文化社)등을 韓國의 出版文化向上을 爲하여 자못 그 뜻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月刊雜誌分野는 綜合誌로서 그 基盤을 닦은 思想界, 女性敎養誌로서의 女苑, 特殊文學誌로서 現代文學, 그리고 自由文學, 專門誌로서 財政, 食糧과 農業, 企業經營, 비지베스, 法政, 農民生活, 保健世界, 映畫世界 등을 들수 있으며 學生敎養誌로 學園, 娛樂誌로 아리랑, 小說界, 野談, 明朋등을 들수 있습니다. 5·16軍事革命以後의 出版界 動向에 있어서는 識者層의 빈축을 사오던 그렇게도 無秩序한 日本圖書 翻譯刊行이 그 支류를 감춘것이며, 이는 5·16後에 社會秩序가 整頓되고 國民의 氣風이 昂揚됨에 따라 讀者層이 圖書選擇의 길을 轉換한 것이요, 安易한 出版物로 學生層에 迎合한 出版社의 出版傾向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出版界 動向은 出版社各自의 獨自의인 出版 기획으로 良書刊行만이 出版界의 소생의 길이라고 自覺하고 독자者層의 良書選擇 구매가 그 根本原因이 되는 것입니다. 出版協會에서는 圖書의 販賣代金を 回收하는 唯一의 方法으로 全出版人이 總合하여 丁抹團과 같은 協同組合體의 單一-販賣機構를 設置하여 圖書代金の 完全回收로 因한 資金의 순환으로 良書刊行에 원활한 企劃을 期約하는 바입니다.

月刊雜誌分野에 있어서도 當局의 日刊新聞과 通信社의 整備와 때를 같이하여

東洋美風에 이롭지 못한 不健全한 娛樂編輯의 傾向은 一掃되었으며 이는 出版界에 從事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國民으로서도 當然한 規矩이라 하겠습니다. 이 機會에 말씀드리고자 하는바는 解放後 우리나라에 있어서 識者間에 日帝時代의 著作權法의 體裁를 踏襲하여 所謂 不文律로써 文書의 出版權設定, 其他 악보, 각본, 연출 등등의 著作物을 出版 및 公演하여온데 對하여 自主國家의 國民의 體面이 甚히 損傷되었은 것을 우려하여온 바입니다. 多幸히 1957年 1月19日 國會에서 文化法의 一環인 著作權法案을 國會 第二讀會에 附議하여 1957年 1月28日 法律第332號로 公布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959年 4月22日 大統領令 1,482號로 著作權法 施行令을 明示하였는데 이는 이나라 出版人으로서 解放後 不美한 出版人의 言行에 對하여 反省의 機會를 주고 아울러 國民의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文化法이 制定된데 對하여 雙手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가치 5·16以後 지난 1961年 6月9日 文教部에서는 文教諮問機關인 著作權關係 協議會를 召集하여 世界著作權 機構加入 問題를 論議하였던바 當日은 文教當局을 爲始하여 學界, 言論界, 出版界의 共同모임이 있어 韓國이 世界著作權保護制度를 遵守하며 文化藝術의 著作者和 著作權을 保護함으로써 文化國家로서의 威信을 갖 추자고 論議된바 있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난발되는 번역도서를 엄선하고, 우리나라의 著作權도 國際의 確立할 수 있다고 이야기된 것입니다. 지금의 유네스코 世界著作權條約이 締結된 것은 1952年 9月6日 「제네바」에서였으나 이것은 그 전의 「베른」條約과, 「팬 아메리칸」條約을

합쳐 만든것으로서 1960年 11月15日 現在 世界 35個國이 加入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들 締約國은 文學, 學術, 藝術의 著作物을 모든 나라에서 함께 保護할 것을 希望하고 同條約에 規定된 著作權保護制度가 다른 國際制度를 害치는 일 없이 모든 國民個人的 權利를 존중하여 文學, 學術, 美術의 發展을 돕게될 것을 確信하며 同制度和 精神著作物의 普及를 한층 쉽게하여 國際間的 理解를 增進하게 될 것임을 믿으며 다가이 協定한다고 條約序頭에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締約國은 文學, 音樂, 演劇, 映畫적 著作物 및 繪畫, 銅版, 彫刻 等の 著作者和 著作權을 効果的으로 保護하는 必要한 모든 措施를 取해야 한다는 것을 規定하고 있습니다.

本人은 1959年 오지리國 비엔나에서 開催된 第14次 國際出版協會總會에 參席하여 會員國 26個國 代表들이 모인 가운데 國際間的 著作權에 對한 問題가 그 會議의 焦點이 되고 있는것을 잘 보고 歸國한 바가 있습니다. 勿論 國家의 體面이나 威信으로 불예 原則的으로 韓國도 世界著作權條約에 加入함이 妥當하며 國內出版人의 無秩序한 原作者의 諒解도 없는 無責任한 翻譯圖書의 법람은 이를 是正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서는 이런 機會에 韓國의 出版界의 淨化에도 큰 意義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出版界의 現實이 지금 곧 世界著作權條約에 加入하는데 隨伴하여 提起될 現實問題를 看過할 수는 없습니다. 卽 지금 우리나라에서 新刊을 刊行한다고 해도 初版 2千部를 上下하는 部數로서 年間 5百種을 基準으로 하여 外貨 5萬弗 程度를 여기에 措置해야 되겠는데 果然 이것

이 韓國의 出版界의 現實과 符合되는지 그 時期 選擇問題를 考慮할바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958年 韓國圖書館協會에서는 國民讀書의 열려가 되는 圖書館普及의 法律的 밑받침인 圖書館法의 制定을 促求하면서 그 立法資料로써 圖書館法 私案을 발표하고 當時의 國會에 提出하였는데, 第8條에 國家는 道, 市, 邑等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하는 公共圖書館에 對하여 官報 其他 一般國民에 對한 公報用의 出版物 2部를 提供하여야 한다라는 項目을 提示하고 있습니다. 國民讀書는 圖書館의 普及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圖書館法의 制定없이 는 圖書館이 普及될 수 없다는 見地에서 우리 出版人들도 이에 全幅的으로 協助하고자 贊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現在 南韓의 20餘個의 公共圖書館을 維持하고 있으니 人口 百萬에 한個라는 한심스러운 現狀입니다. 外國의 例를 들어 大體로 人口 2千名에 하나의 比率로 圖書館을 가지고 있는 現實에 比較하면 顯격한 差異가 있는 것입니다. 學校圖書館에 있어서는 學校圖書館法이 制定되어 國民學校以上の 學校는 學校圖書館을 設置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에는 大學設置 規準에 大學圖書館의 基準에 該當하는 條項이 있을 따름입니다.

5·16軍事革命 以後에 各界各層의 率先自律的으로 社會淨化를 爲하여 協力하고 있는 이마당에서 韓國의 出版界도 自省하고 國內 國際的으로 良心있는 圖書의 刊行으로 出版文化의 發展을 爲하여 全力을 傾注하고 있음은 부연할 必要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장내 박수)